

# 소쉬르와 훗설 : 기호학과 현상학

(Saussure and Husserl : semiology and phenomenology)

최용호\*

## 요약

이 논문의 초점은 소쉬르의 기호학과 훗설의 현상학을 발생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데 있다. 헤르만 빠레트는 소쉬르와 훗설을 비교하면서 이 두 사상가들이 보여주는 긴장관계를 사실성과 관념성의 대립 속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이 두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언어에 대해 이원적이고 환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아울러 지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이론적인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풍요로움을 언급한다. 우리는 헤르만 빠레트가 언급한 이러한 근원적인 풍요로움을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와 훗설의 가하학의 기원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 기하학의 기원이 현상학의 가능조건에 대한 역사적 물음이라면 전설에 대한 연구는 기호학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는 이 두 연구를 발생적 차원에 속한 연구로 볼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그간 구조주의가 소홀히 해왔던 발생적 차원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 1. 학문간의 대화

학문의 존재 양식은 대화이다. 학문은 질문과 대답 또는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이라는 독특한 대화 형식을 통해 존재한다. 개별 학문 분야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설명 과정에서 노출된 논리적인 결함 등의 이유로 제기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식의 모색이라는 양상을 띤다. 때로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적합한 해답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방식이 한 학문 분야 내에 머무를 경우 지식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간과하거나 무시해 버리기 십상이다. 타 학문과의 대화는 이러한 학문의 유아론적인 자기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자기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자기 자신과의 대화 보다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발견된다는 일상적인 경험을 상기할 때 학문 상호간의 대화가 갖는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배후에 깔고 기호학과 현상학이라는 현대 사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두 거장 소쉬르와 훗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우리는 특별히 훗설의 현상학이 소쉬르의 기호학을 포괄하려는 철학적인 야망을 품을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이론적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개별 학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문제의 해결을 실제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학문상호간의 대화는 반드시 문제해결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다.

## 2. 문제와 문제들

해르만 빠레뜨는 「표현과 분절」(1973)이라는 제하의 논문 속에서 소쉬르와 훗설의 언어관을 처음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그는 언어학자의 사실적 언어관과 현상학자의 관념적 언어관을 대립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대립적 구도 하에서 두 사상가가 언어, 기호, 언어형태, 담화 등의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들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한다. 그는 주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와 훗설의 전기 저작에 해당하는 『논리탐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비록 사실성과 관념성의 대립이 이 두 사상가에 대한 분석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빠레뜨는 이 두 사람 모두 언어에 대한 환원적이고 이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언어에 대한 환원적이고 이원적인 사상이 이러한 이론적 테마 이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담론성을 배제함으로써 형성된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한다. 그는 암시적인 다음의 문구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에 대한 모든 사상은 문법적 이론이 되며 근원적 풍요로움의 상실을 확고히 한다(빠레뜨, 1973. 113면).

빠레뜨는 어쩌면 가장 흥미진진할 수 있는 근원적 풍요로움(richeesse originaire)에 대한 암시를 여운으로 남긴 채 소쉬르와 훗설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마무리한다. 앞서 우리는 빠레뜨가 주된 분석 대상으로 소쉬르의 『강의』와 훗설의 『논리탐구』를 설정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우리는 분석 대상을 보다 확장시킴으로써 소쉬르와 훗설의 대화를 재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소쉬르의 『진설에 대한 연구』와 훗설의 『기하학의 기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훗설의 사상을 두 시기로 구분한다면 논리탐구로 시작되는 기술적 현상학의 시

기와 『서구 과학의 위기와 초월적 현상학』으로 대변되는 발생적 현상학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하학의 기원』은 바로 후자의 시기에 해당되는 연구이다. 앞으로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소쉬르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구분을 내릴 수 있다. 소쉬르의 기호학적 프로그램은 『강의』에서 처음으로 노정된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기술적 기호학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설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발생적 기호학의 프로그램과 구분하고자 한다. 빠레트는 주로 기술적 기호학과 기술적 현상학의 시기에 해당하는 소쉬르와 훗설을 연구하였다. 반면 우리는 발생적 차원에서 이 두 사상가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기호학과 현상학의 발생적 차원에 대한 물음을 통해 우리는 빠레트가 여운으로 남긴 “근원적 풍요로움”에 접근하고자 한다.

### 3.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sup>1)</sup>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는 고텔의 『수기 원자료』 이후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뒤 주로 이탈리아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된다. 아발은 1973년 「소쉬르에게 있어서 설화성의 기호학」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이 논문 속에서 소쉬르의 신화학을 강의의 기호학적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해체로서 해석한다. 해체 철학에 기반을 둔 이러한 입장은 정통 소쉬르 학자들에게 의해 비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앵글리(1974~75와 1980)는

1) Marinet A. et Meli M., 1986, *Ferdinand de Saussure Le leggende germaniche*, Liberia Editrice Zielo-Este. 우리는 이 책을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로 번역해서 인용하였다.

『소쉬르의 기호학』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통해 『강의』의 소쉬르와 『전설』의 소쉬르의 화해를 모색한다. 그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강의』와 『전설』이 동일한 기호학적 프로그램에 속한다는 점을 풍부한 문헌학적인 고찰을 통해 설득력있게 논증한다. 아울러 그는 이 두 프로그램이 다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그 기술 대상을 각기 달리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변론한다. 이렇게 시작된 소쉬르 사고의 일관성과 비일관성에 대한 논쟁은 김성도(1991과 1993)에 의해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어 진다. 그는 재치있게 로고스와 뮤토스의 대립으로 소쉬르의 사고가 겪고 있는 갈등을 묘사한다. 이러한 갈등은 때때로 소쉬르의 기호학 프로그램을 위기로 몰고간다. 그러나 이 위기는 아발에서와 같이 소쉬르 기호학에 대한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소쉬르에 대한 김성도의 독특한 독해 방식이 가장 잘 들어난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그는 위기라는 말이 갖는 한자적인 의미를 되살려 소쉬르의 신화학이 강의의 기호학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한다면 이 위험은 또다른 기회이다라고 역설한다. 여기서 기회란 다름 아니라 기호학적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가능성을 가리킨다. 시학-아니그람 연구-이나 신화학-전설에 대한 연구-이 기호학 프로그램에 합류함으로써 기호학 내에 미학적 담론의 가능성이 여러개 된 것이다.<sup>2)</sup> 이렇게 놓고 볼 때 소쉬르의 사고가 겪고 있는 갈등은 본질적으로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며 연구 대상을 확장해 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강의』와 『전설』이 갖는 상

2) 김성도, 1998, 『현대 기호학 강의』, 민음사, 94면 참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을 수 있다. : “이 같은 기호학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소쉬르는 고정된 하나의 틀을 결정적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속본에서 본 기호학의 예들이 모두 공리적(功利的)인 대상들인 반면에, 소쉬르는 이 노트에서 신화와 전설의 담론을 기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미학적인 체계들의 기호학화를 투시하고 있다.”

보적인 관계를 또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필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글의 머리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는 『강의』를 기술적 기호학에 속한 프로그램-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으로 『전설』을 발생적 기호학에 속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강의』과 『전설』이 모두 기호학적 프로그램에 속한다는 사실을 환기해 보자. 소쉬르는 『전설』에 대한 연구』속에서 전설의 상징들과 랑그의 단어들이 모두 기호학의 연구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상징들은 부지불식 간에 일련의 다른 상징들, 예를 들어 랑그의 단어들이 상징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浮沈과 동일한 법칙에 종속된다.

이들은 모두 기호학에 속한다. (『전설』, 25면)

기호학에 대한 소쉬르의 생각은 190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빌은 그가 펴낸 『과학의 새로운 분류』(1901)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호학에 대한 소쉬르의 정의를 소개해 준다.

소쉬르 씨는 그가 기호학이라고 부르는 매우 일반적인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과학의 대상은 기호와 의미의 창조와 변화의 법칙이 될 것이다. (『강의』 마우로, 351면)

7년 뒤 두 번째 강의에서 소쉬르는 기호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조세프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정의를 소개한다.

……기호학, 즉 사회 속에서의 기호들의 삶에 대한 연구.

(『강의 비판본』, 48면)

언뜻 보기에 기호학에 대한 『과학』의 정의와 『강의』의 정의는 일맥상통한다. 즉 기호학은 기호들에 대한 과학이다. 그러나 좀더 주의

를 기울여 본다면 사람들은 『과학』에서와는 달리 『강의』에서는 기호학에 대한 통시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사회 속에서의 기호들의 삶은 사회적 삶이다. 미셸 아리베(1994, 40면)는 매우 예리하게 사회적 삶은 곧 사회적 기능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강의』의 기호학은 기호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그 목표로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강의』의 기호학은 기술적 기호학이다. 논의를 심화시켜 보자.

기술적 기호학의 대상인 기호는 자의적 기호이다. 주지하다시피 소쉬르는 기호의 자의성을 기호의 제1원리로 제시한다. 기호가 자의적이다라는 말은 기호가 사물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언어의 단어들은 자의적인 기호들이다. 그러나 모든 기호들이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쉬르는 예의 범절과 관련된 기호가 자연스러운 표현성을 담고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의의 상징인 저울 또한 자연적인 흔적을 담고있다. 그러나 소쉬르는 분명히 “전적으로 자의적인 기호들이 다른 어떤 기호들 보다 더 잘 기호학적 과정의 이상을 실현”(『강의』, 101면)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기술적 기호학은 자의적인 기호들의 사회적 기능작용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앞서 우리는 전설의 상징들이 랑그의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기호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설의 상징들은 랑그의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자의적인가? 이 물음에 곧바로 대답하기 전에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자. 이 특징은 그의 연구 계획 속에 가장 잘 나타나있다.

#### 계획

##### I. V°-VI° 세기 역사적 사실들과 순수한 노르드 지방의 전설

Ⅱ. 역사적 사건들과 독일 남쪽 지방의 순수한 전설

Ⅲ. 이 세가지 자료들의 비교와 이 후의 연구 …… (『전설』, 143면)

이 연구 계획서에 따르면 소쉬르는 역사적 사실과 전설과의 비교를 연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전설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침은 전설에 대한 그의 독특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즉 그는 전설을 하나의 창작물에 불과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당시의 상징주의적 입장에 반기를 들고 전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적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그는 전설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구체적으로 사건이나 인물을 주변으로 역사와 전설의 대응 관계를 연구한다. 그에게 있어서 역사는 한마디로 “전설의 외적 고리”(『전설』, 113면)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큰 무리 없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 수 있다. 즉 소쉬르는 전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 세계를 보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담고있는 이론적인 함의는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전설의 상징들은 결과적으로 역사와 지시적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전설의 상징들은 전적으로 자의적인 랑그의 단어들과 동일하게 기호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자의성의 원리에 천착해서 『강의』과 『전설』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 두 기호학적 프로그램이 필연적으로 갖게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소쉬르가 위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한다.

소쉬르가 전설의 상징들과 랑그의 단어들이 모두 기호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할 때 그는 기호의 자의적인 특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가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전설의 상징들이 랑그의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끊임 없이 변한다고 주



장하고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들 모두 기호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강의에서는 배제된 기호학에 대한 통시적인 차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sup>3)</sup> 소쉬르의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분은 비단 언어학 분야 뿐만이아니라 기호학 분야에서도 동일한 강도로 적용되어야한다. 사실상 오늘날의 기호학-영미식 기호학이든 유럽식 기호학이든-은 이러한 통시적 차원을 외면한 채 기호의 공시적 기능작용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쉬르의 기호학에 대한 정의와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는 현대 기호학으로부터 외면 당한 기호학의 통시적 차원을 일깨워준다. 특별히 우리는 『전설』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호학의 통시적 프로그램을 발생적인 것으로 특성화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전설』은 단지 기호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기호의 생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전설』에서 소쉬르는 상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먼저 상징이 아니었던 것으로 해명된 것만이 상징으로 용인될 수 있다.  
(『전설』, 77면)

- 
- 3) 우리는 앵글러가 펴낸 일반언어학 강의 비판본 제2권에서 다음과 같은 기호학에 대한 놀라운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Parmis tous les systèmes sémiologiques le système sémiologique 'langue' est le seul(avec l'écriture dont nous parlerons en temps et lieu) qui ait eu à affronter cette épreuve de se trouver en présence du Temps, qui ne se soit pas simplement fondé de voisin à voisin par mutuel consentement, mai aussi de père en fils par imérative tradition et au hasard de ce qui arriverait en cette tradition, chose hors de cela inexpérimentée, non connue ni décrite. .... Ce fait qui est le premier qui puisse exciter l'intéret du philosophe rest ignoré des philosophes: aucun d'eux n'enseigne ce qui se passe dans la **transmission d'une sémiologie**(발표자)” (Engler, 1974. p.47)

이 정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비상징 (=비기호) → 상징 (=기호)

『강의』가 기호의 기능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전설』은 기호의 생성과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 비기호에서 기호로의 변환은 이야기하는 행위(acte de raconter)인 기호학적 전달(transmission sémiologique)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쉬르는 이야기거리가 된 전설이 초기에 담고 있던 역사적인 내용을 상실한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허구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관찰한다. 전설의 상징들은 역사적 관계에서 벗어나 점점 “순수한 단어들”(『전설』, 132면), 즉 자의적인 기호들로 변해버린다. 그 결과 전설에 대한 연구는 소쉬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순수한 상징론” 또는 “순수한 신화론”(『전설』, 130면)이 되어 버린다. 우리가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를 발생적 기호학에 속한 연구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처럼 비기호학이 이야기하는 행위인 기호학적 전달 행위를 통해 기호학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호학적 전달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

기호학적 전달 행위로서의 전설은 공통의 기억을 “재생산하”는 행위이다(『전설』, 76면). 이 행위는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어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는 행위는 구전의 전통(tradition orale)(『전설』, 201면)에 속하는 인류의 정신적 활동이다. 즉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야기 형식을 빌어 이 사건을 표상하고 이렇게 표상된 사건을 이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당대의 사람들이나 후세에게 전달한다. 이 기호학적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다. 이야기거리가 된 역사적 사건은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공통의 기억 유산이 된다. 소쉬르는 이 사회적인 유통 과정을 사회화의 시련(épreuve de la socialisation, 『전설』, 193면)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공통의 기억이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본래의 내용

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소쉬르에게 있어서 사회성의 개념은 결코 정태적이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순환(circulation)과 전달(transmission)이라는 끊임 없는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전설은 변화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소쉬르의 사회성은 역사성으로 나아간다. 소쉬르는 사회화의 시련과 아울러 시간의 시련(épreuve du temps, 『전설』, 193면)을 언급하는데 이는 다름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이 시간의 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기호학적 전달행위는 사회적 행위임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le temps écoulé, 『전설』, 77면)을 전제하는 행위이다. 소쉬르의 시간 개념을 신비화하지 않으려면 시간의 경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화 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과장하거”나 “축소하고”(『전설』, 77면) 또는 “실수”(『전설』, 133면)로 이야기의 일부를 빠뜨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설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된다. 즉 기호의 전달은 기호의 변형을 낳는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말 잇기 놀이에서도 잘 관찰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다음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하고 이 사람이 다시 또다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같은 방식으로 전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달 받은 사람이 이를 발표한다. 흥미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전달된 메시지가 처음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만약 메시지가 이렇게 변한 이유를 소쉬르에게 묻는다면 그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장되었거나 축소되었고 혹은 그 일부가 실수로 빠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의 사회적 전달은 이야기의 변질을 가져온다. 역사적 사건은 이야기화되면서 기호학적 전달과정에 종속되는데 이를 통해 변화를 받게된다. 우리는 기호의 사회적 전달을 거시 화행론(macro-prag-matique)에 속한 연구로 규정하고자 한다.<sup>4)</sup> 거시 화행론은 기호의 사회적 전달과 아울러 기

호의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소쉬르는 위에서 과장/축소/실수 등을 변화 원인으로 언급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할 요소가 있다. 이 요소는 다름아니라 기억의 결핍(défaut de mémoire, 『전설』, 200면) 즉 망각(oubli, 『전설』, 440면)이다. 우리는 이를 변화의 원초적 요인으로 규정하고자한다. 이 원초적 요인은 다른 파생적 요인들의 모태가 된다. 우리는 기호행위에 있어서 망각이 갖는 창조적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이야기꾼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그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문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결핍이다. 이야기꾼으로서 기억의 결핍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소쉬르는 이를 “긍정적인 심리적 요소”(facteur psychologique positif, 『전설』, 440면)로 보았다. 이야기꾼은 역사적인 임무를 기억의 결핍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상”(『전설』, 220면)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첨가하게 된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전통을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기억의 결핍으로 인한 상상력은 전통에 대해 다르게 남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변화의 핵심 요인이다. (『전설』, 220면)

이야기는 속성상 처음과 끝이 있으며 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끈이 망각으로 인해 일부 끊어진다면 이야기는 이야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 끈을 다시 잇기 위해 이야기 꾸는 자신의 판단을 개입시킨다. 바로 이 순간 역사적 사실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한다.

- 
- 4) 이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병기와 최용호(1998)의 『소쉬르 언어 이론의 세가지 화용론적 차원』 참조. 장병기와 최용호는 이 논문에서 동년과는 다르게 소쉬르에게서 미시 화용론, 중시 화용론, 거시 화용론이 가능함을 이들에 대한 모델과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설은 사실이나 이야기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한 세대의 모든 사실들을, 판단과 감정들을 전달할 수 있다. (『전설』, 136면)

역사적인 경험은 이야기 형식을 빌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그 본래적인 내용을 상실하고 허구적인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설의 상징들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순수한 단어들”, 즉 전적으로 자의적인 기호들이 되어간다. 『강의』에서 소쉬르는 지시의 문제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의적인 기호이론을 정립하였다. 반면 『전설에 대한 연구』에서 소쉬르는 지시의 문제가 망각되어가는 역사적인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기호의 생성은 기호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망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태어난 기호는 순수한 형태를 지니며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넓혀간다.

우리는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를 발생적 기호학으로 규정하였다. 논의를 통해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설은 구전의 전통에 속한다.
2. 전설은 역사에 그 기원을 둔다.
3. 역사에 기원을 둔 전설은 이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전달된다.
4. 이야기의 전달은 이야기의 변화를 가져온다.
5. 이야기의 변화는 기원에 대한 기억의 결핍으로 인한 상상력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6. 그 결과 역사적 이야기는 허구적 이야기가 된다.

요약하면 발생적 기호학은 비기호학이 기호학적 전달 행위를 통해 기호학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 4. 훗설의 기하학의 기원<sup>5)</sup>

훗설은 기하학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은 독창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 문제는 무엇 보다도 회고적 질문을 속에서 ……기하학의 근원적 의미를 캐묻는 것이다. (『기하학』, 173면)

기하학의 근원적 의미는 다름 아니라 기하학으로 하여금 기하학(“la géométrie”)이 되게 하는 바탕이다. 훗설이 이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된 동기는 그가 보기에 오늘날 기하학-더 나아가 모든 과학이-이 의미 없는 전통(tradition devenue vide de sens, 『기하학』, 195면)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근원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대답하게도 그가 그토록 대항해 왔던 역사주의의 비판을 무릎쓰고 역사적 연구에 착수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하학』의 훗설과 『전설』의 소쉬르가 조우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현상학자는 현상학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가라는 질문을, 기호학자는 기호학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가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한 것이다.<sup>6)</sup> 기원에 대한 물음은 역사적인 질서에 속한다. 그러나 훗설이 『기하학의 기원』에서 역사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가 제기한 역사적 물음은 모든 역사적 연구의 전제가 되는 역사성에 대한 물음

5) Husserl E., 1962, *L'origine de la géométrie*, Paris, PUF. 우리는 이 책을 「기하학의 기원」으로 번역해서 인용했다.

6) 소쉬르는 『전설에 대한 연구』에서 전설을 구성하는 상징들의 역사적 기원에 관해 질문을 제기한다. 주지하다시피 소쉬르의 신화학은 기호학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소쉬르가 자신의 전설에 대한 연구에서 기호학에 대한 발생적 질서에 속한 질문 -기호학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을 제기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다(『기하학』, 206~207면). 따라서 그의 선험철학은 역사성에 대한 물음으로 인해 결코 타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소쉬르의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이다. 그가 전설의 기원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때 그는 사실적 역사관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사실상 훗설과 소쉬르는 헤르만 베레프가 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관념성과 사실성의 대립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상가 모두 기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발생적 차원을 그들의 연구에 끌어들이게 되었다.

앞서 우리는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 속에서 비기호가 기호로 생성되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였다. 훗설은 『기하학의 기원』에서 기하학의 의미 즉 기하학으로 하여금 기하학이 되게끔 하는 근원적 의미에 대해 묻는다.

우리는 기하학을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게-들어올 수 밖에 없었던 -했던 그 의미에 대해 묻고자한다. (『기하학』, 175면)

위의 착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 → 기하학

기하학은 관념적 지식이다. 훗설은 관념적 지식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묻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도식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킬 수 있다.

비관념성(non-idéalité) → 관념성(idéalité)

관념성의 생성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훗설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추적하지 않는다. 그는 회고적 질문(question en retour 『기하학』, 173

면)이라는 독특한 질문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꾀한다. 기원의 문제에 대한 회고적 접근은 현시점에서 출발하여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태도이다. 훗설은 기하학의 기원을 고찰하기 위해 완전히 구비된 기하학, 즉 기하학의 전통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회고적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완전히 구비된 기하학은 하나의 전통으로 존재한다. (『기하학』, 175면)

훗설은 다른 아닌 전통에 대한 반성을 통해 기하학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전통이란 무엇인가? 훗설에 따르면 전통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다.

모든 전통은 인간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산출된다. (『기하학』, 175면)

결과적으로 관념적 지식으로서의 기하학은 그 기원을 모든 전통의 출발이 되는 생산적 주체(subjectivité productrice, 『기하학』, 177면)의 창조적 활동에 두게 된다. 비기호(non-sign)에서 기호(sign)로의 전환이 기호학적 전달 행위인 이야기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비관념성(non-idéalité)에서 관념성(idéalité)으로의 전환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통이 전통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행위가 일시적으로 끝나거나 안되며 행위의 결과가 기억 보존되어야 한다. 훗설은 재회상(ressouvenir)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념적 대상을 창조하는 행위가 재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훗설(1905)은 『시간의 내적 의식에 대한 현상학』에서 일차 회상(souvenir primaire)과 이차 회상(souvenir secondaire)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일차 회상은 지각의 연장선 상에서 그 생생함을 보존하지만 소극적 행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생생함을 잃어 버린다. 반면 이차 회상은 비록 지각적 상황과 단절되어 있지만 이 상황을 재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동적 행위이다.



훗설은 시간에서 재회상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훗설, 1905. 68면). 반면 『기하학의 기원』에서 그는 진리의 보존을 위해 오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서 재회상은 기하학의 근원적 의미를 재발동시키는(réactiver)는 능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잠시 주의를 돌려 재회상에 대한 소쉬르의 견해를 들어보자. 소쉬르는 전설에 대한 연구에서 재회상(ressouvenir)이라는 용어 대신에 재생산(reprodui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전설은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하게 재생산하”(『전설』, 76면)는 행위이다. 재회상이든 재생산이든 근원적 의미를 재발견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일치한다. 그러나 철학자와는 다르게 언어학자는 이 근원적 의미가 망각으로 인해 손실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고 있다. 망각된 전설의 잃어버린 의미를 재회상을 통해 되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망각은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는 과정 이전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기하학의 근원적 의미는 재회상되고 전설의 근원적 의미는 재회상될 수 없는가? 우리는 관념성과 사실성의 대립으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기하학의 의미는 관념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반면 전설의 의미는 사실로서의 역사이다. 관념적 대상은 시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의 한계 넘어에 존재하며 전설은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어 기억의 한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역사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역사 속으로 처음 들어선 관념적 대상은 역사의 흐름에 관계 없이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역사에 기원을 둔 전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를 망각한다. 그 결과 기하학은 순수한 관념적 산물이 되며 전설은 순수한 상징이 된다.

또 다른 각도에서 현상학자와 기호학자의 만남을 주선했보자. 전설은 기호학적 전달과정에 종속된다. 다시 말해서 전설은 사회적 유통의 대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하학이 생산 주체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 기하학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한 개인 내부의 관념성으로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기하학적 관념성은 개인의 소유에 한정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생산적 주체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관념성이 어떻게 객관적 관념성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 훗설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한다.

어떻게 해서 기하학적 관념성은…… 개인 내부의 근원적 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관념적 객관성에 도달하는가? (『기하학』, 181면)

이 질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관념성: 주관성 → 객관성

발생적 현상학은 사실성으로부터 관념성이 도출되는 과정과 주관성으로부터 객관성이 유도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훗설은 사실성에서 관념성이 도출되는 과정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설명하고 이 관념성이 재현되는 근원을 재회상에서 찾았다. 이제 논의를 발전시켜 어떻게 개인적인 진리가 객관성을 획득하는가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훗설은 그의 언어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훗설은 인류(humanité)를 언어 공동체(communauté du langage)로 정의한다(『기하학』, 182면).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자기들의 생각이나 체험을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다시 말해 언어는 표현적 기능과 의사소통적 기능을 수행한다. 훗설은 이처럼 언어를 통해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산물이 외화(표현성)되고 또한 전달(의사소통성)된다고 설명한다.

언어를 통한 상호이해의 연관 속에서 한 개인의 산물이나 근원적인 생산은 다른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재이해될 수 있다. (『기하학』, 185면)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언어는 상호이해의 완벽한 수단인가? 언어적 표현은 자유연상을 촉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은 종종 사람들을 오해에 빠지게 만든다. 소쉬르는 언어의 구조를 통합관계와 연상관계로 나누었는데 그에 따르면 연상관계는 무한하다. 다시 말해서 소쉬르의 언어는 오해의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수용하고 있다. 훗설 또한 언어의 표현성으로 인한 자유연상의 위험성을 고려한다.

이들은(자유 연상의 유희) …… 지속적인 언어의 습득의 형태로 정신적 산물의 불가피한 침전작용에 의해 항구적인 위험으로 남는다. (『기하학』, 188면)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자유연상의 위험으로부터 기하학의 근원적 의미를 보전하는가이다. 훗설은 이 문제를 언어적 표현의 일의성으로 해결한다.

사람들은 이 위험을 비단 실제적인 재작동을…… 확신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명백한 근원적 형성 이후 재작동의 힘과 항구적인 유지를 보증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언어적 표현의 단일성에 착념할 때…… 일어난다. (『기하학』, 188면)

훗설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의 일의성은 명백한 것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etre soucieux de) 알 수 있는 것이다. 언어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완벽한 상호이해는 가능해진다. 훗설이 시,공을 초월한 번역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의 이러한 언어관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의 언어는 한마디로 보편적 언어(langage universel)이 때문이다. 이 보편적 언어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훗설은 언어의 논리적 구조로 인해 비단 관념적 지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새롭게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그의 보편적 언어관을

통해 근원적 의미의 재생산, 전달, 혁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과연 보편적 언어는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언어학자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촘스키의 언어 모델은 보편적 언어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 소쉬르의 언어 개념은 이를 배제한다. 만약 사람들이 소쉬르의 랑그를 보편적 언어로 애해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쉬르의 랑그는 자연언어의 다양성으로부터 일반화된 언어이다. 촘스키의 모델이 하강모델이라면 소쉬르의 언어 모델은 상승모델이다. 하강모델이 맨 밑으로 내려 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승모델은 맨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결국 자연언어의 다양성에서 출발하여 일반화를 거친 소쉬르의 랑그는 결코 보편적인 언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한 데 있다. 소쉬르는 랑그의 존재 양식을 사회성으로 규정한다. 그의 사회성을 그저 협약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부당하다. 소쉬르의 사회성은 사회적인 순환을 가리킨다. 사회적인 순환 속에서 랑그는 변화를 겪게 된다. 다시 말해서 소쉬르의 사회성은 역사성으로 나아간다. 소쉬르의 랑그가 설령 보편적 언어라 하더라도 이 언어는 오직 사회적 순환 속에서 존재해야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변화하는 존재는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다. 소쉬르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것은 그가 언어능력(faculté du langage)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며 이 보편적인 능력이 각 언어 공동체 속에서 육화된 자연언어들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소쉬르와 훗설의 만남은 이렇게 해서 다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1. 기하학은 인류의 전통에 속한다.
2. 기하학은 근원적 정신적 활동에 의해 역사 속에 들어 왔다.
3. 이렇게 해서 형성된 관념성은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데 이 관념

성은 재회상을 통해 재발동될 수 있다.

4. 재발동된 관념성은 언어를 매개로 관념적 객관성에 이른다.
5. 관념적 객관성은 언어의 논리적 구조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다.

## 5. 결론: 기호학과 현상학

우리는 지금까지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와 훗설의 기하학의 기원을 각각 살펴보았다. 우리는 글의 머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훗설의 기하학이 소쉬르의 기호학을 포함하려는 철학적인 야망을 품을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훗설의 현상학이 과연 이와 같은 철학적인 야망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훗설의 역사는 보편적 역사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논의는 의미의 가장 심오한 문제로, 과학과 과학 일반의 역사적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편적 역사 일반의 문제로 나아갈 것이다. (『기하학』, 173~174면)

보편적 역사는 기하학의 역사 뿐만이 아니라 전설의 역사 또한 포괄해야 한다. 훗설은 관념적 객관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단 과학 뿐만이 아니라 문학적 예술도 고려한다. 이들은 모두 인류의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대상이다.

관념적 객관성은 모든 과학적 산물과 과학 그 자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를 들어 문학적 예술(art littéraire)의 산물이 속하는 문화적 세계의 정신

적 산물의 모든 부류에 고유하다. (『기하학』, 179면)

훗설의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 훗설의 현상학은 소쉬르의 기호학을 포괄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야망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두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인류의 정신적 산물인 관념적 대상은 재회상되는 반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화한 전설은 망각의 위협을 받는다.
2. 훗설의 현상학은 보편적 언어에 의해 지탱된다. 소쉬르에게 있어서 언어는 사회적인 순환 속에서만 존재한다. 사회적인 순환에 종속된 언어는 끊임 없는 변천의 과정에 노출된다. 다시 말해서 소쉬르의 언어는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이다.

현상학이 그 발현 과정에서 언어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그것이 기호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최소한 위에서 제기한 두가지 문제로 인해 이들의 만남이나 대화는 긴장관계 -빠레트가 지적한 관념성과 사실성의 대립-에 놓이게 된다.

## 참고문헌

- Arrivé M., 1994, *Langage et psychanalyse, linguistique et inconscient*, Paris, PUF.
- Avalle D., 1973, 'La sémiologie de la narrativité chez Saussure', in *Essais de la théorie du texte (Bouazis)*, Paris, Galilée.
- Engler R., 1967~68,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par R. Engler, T. 1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Engler R., 1974,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par R. Engler, T 2: Appendice Notes de Ferdinand de Saussure sur la linguistique générale,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Engler R., 1974~75, 'Sémiologie saussurienne 1. De l'existence du signe', CTL 13.
- Engler R., 1980, 'Sémiologie saussurienne 2 Le canevas', CFS 34.
- Godel R., 1957,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erdinand de Saussure*, Genève, Droz.
- Husserl E., 1905(1964), *Leçon pour une phénoménologie de la conscience intime du temps*, Paris, PUF.
- Husserl E., 1962, *L'origine de la géométrie*, Paris, PUF.
- Kim S., 1991, *Ferdinand de Saussure: de la langue au myth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e Paris X Nanterre.
- Kim S., 1993 'La mythologie saussurienne: une nouvelle vision sémiologique?', *Semiotica* 97-1/2.
- Martinet A. et Meli M., 1986, *Ferdinand de Saussure Le leggende germanich* Libreria Editrice Ziele-Este.
- Mauro T., de, 197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Payot.
- Parret H., 1973, 'Expression et articulation. Une confrontation des points de vue husserlien et saussurien concernant la langue et le discours', *Revue philosophique de Louvain*, t. 71.
- 김성도, 1998, 『현대 기호학 강의』, 민음사.
- 장병기·최용호, 1998, 「소쉬르 언어 이론의 세가지 화용론적 차원」, 언어학, 한국언어학회.

최용호(Yong-Ho Choi)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강사

(463-0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6번지 신동아빌라 402호

Tel : 0342-702-0646